눈길 끄는 톡·톡·행·정

“외로운 어르신 친구 돼 드려요”

보성군 ‘스마트 돌봄 로봇’ 제공

움직임 없으면 통보…인사 등 대화 가능

보성군은 고령층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 방안으로 ‘스마트 돌봄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성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외로움·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 3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돌봄 로봇을 보급했다.

인형처럼 생긴 돌봄 로봇은 미리 시간을 맞춰두면 식사, 약 복용 등 일상생활을 관리해 준다.

또 대상자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 또는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에게 알림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2021년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돌봄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보성군이 치매어르신들에게 제공한 스마트 돌봄 로봇. 〈보성군 제공〉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치매 어르신 위치 알려드려요”

광양시, GPS 손목시계 무상 보급

실시간 위치 추적·이탈 경고·긴급호출 등

광양시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후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부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보급 중인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형 단말기로 가족들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배회감지기와 앱을 통한 안심존 설정과 이탈 시 경고, 긴급호출 SOS 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광양시는 배회감지기 외에도 고유번호가 기록된 의복부착형 치매 배회 인식표와 치매안심 팔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경찰서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사전지문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매 예방·진단 상담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원스톱으로 사전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실종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무상 보급하는 손목부착형 ‘배회감지기’. 〈광양시 제공〉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수협과 고흥군은 지난 30일 수협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일본 킨바라노리텐사 바이어 등 수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김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고흥 김’ 日 수출 1년새 12배 늘었다

지난해 13만→140만달러 실적·올 250만달러 예상…내년 미역·다시마 수출 협약

지난해 고흥 특산품인 김의 일본 수출이 전년보다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흥군수협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4월 일본 킨바라노리텐사 600만 달러 상당의 고흥 김 수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수출문을 활짝 열었다.

고흥 김의 일본 수출은 2019년 13만 달러에 그쳤으나, 김 수출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0년 140만달러를 기록, 무려 12배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는 25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흥 특산품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고흥 김은 탄력이 좋아 김밥용으로 적합하며, 고흥이 국내 김밥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특성이 연간 10억장의 김이 소비되는 일본 시장에 적합해 일본 수출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흥군은 김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 증가는 김 생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수출협약 이후 김 수출량이 크게 늘어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는 수출 시기를 앞당겨 초산 김부터 수출,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농산물과 함께 우수한 품질과 많은 생산량을 가진 고흥군의 수산물 수출 또한 중요하다”며 “수산물은 보관 문제 등으로 품목과 신규시장 수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지사와 일본 킨바라노리텐사 이사는 “고흥군수협과 고흥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회사의 수입 생산 제품 중 고흥 김의 비율이 5%에서 60%까지 늘었다”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내년에는 더 많이 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김에 이어 내년에는 미역과 다시마의 일본 수출협약을 준비 중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 도림사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완료

군, 산책로·계단 설치 등 복원 후 주민·관광객에 개방

곡성의 대표 관광지 도림사 계곡의 불법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다.

곡성군은 도림사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복원 작업을 통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림사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

하지만 주변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계곡 인근에 평상과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하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곡성군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겹쳐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동안 설득을 통해 불법 구조물을 모두 철거했다. 철거된 시설물은 평상 80여개, 구조물 2개, 방갈로 1개 등이다.

곡성군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림사 계곡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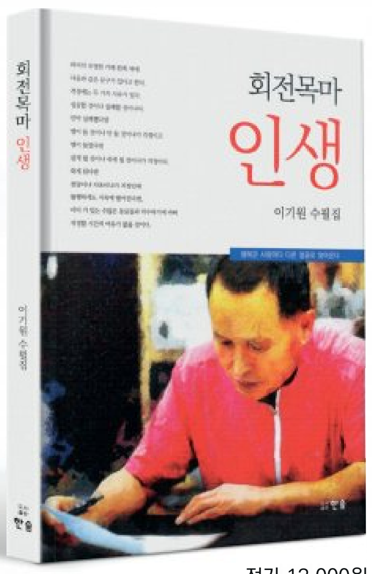
또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림사 주차장과 연계해 계곡 주변에 산책로와 계단 등을 설치한 뒤 주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불법 하천 시설물이 정비돼 집중호우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림사 계곡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도림사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복원 사업을 추진한 뒤 개방한다. 사진은 도림사 계곡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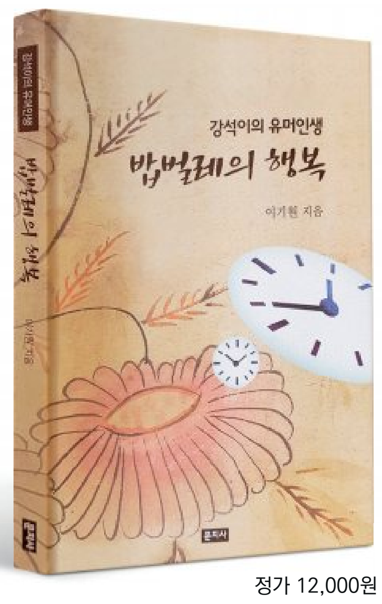


정가 13,000원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2,000원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